국내 최초 근·현대 불교미술품 한자리에

불교문화산업기획단
17~28일 가나아트센터



◇정종여의 '의곡사여래좌상 괘불'.



◇오지호의 '아미타후불탱화'.



◇이만익의 '월인천강'.



◇이화자의 '석별'.

작고·원로·중견작가 41명 작품 72점 전시

정혜사 '관음보살입상' 등은 미술계 첫 공개

20세기 불교미술 흐름 정리·지방 순회도

근·현대 불교미술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국내 최초로 마련된다.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아름다움과 깨달음-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 조소예술가인 김복진(1901~1940)씨의 '정혜사 관음보살 입상'(1935)(390호 26면 참조)을 비롯해 정종여씨의 '진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1938), 근대 대표적 유화가 오지호의 '광주 무등산 아미타후불탱화'(1954), 70년대 현대 채색화를 새롭게 일군 박생광씨의 '청담스님'(1983), 이중섭씨의 '손'(1954), 최영림의 '극락도'(1969) 등 작고작가와 원로·중견작가 41명의 작품 72점이 선보인다.

이중 유려한 자태에 원만한 상호 등으로 근대 최고의 불상작품으로 꼽히는 '정혜사 관음보살입상'과 높이 7m의 대작으로 붉은 가사를 입고 있는 연화좌 위의 여래좌상이 인상적인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 청담 스님의 면모가 추상적인 기법으로 설득력 있게 묘사된 대작 '아미타 후불탱화'는 미술계에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고희동씨의 '인봉선불 진영'(1938), 설산 스님의 '경봉당 익운진영'(1917) 등 볼거리가 푸짐하다. 보기만 해도 탄성이 절로 나오는 화려하고 다양한 기법의 불교미술품들을 접하다 보면, '불교미술하면 으레 고루하고 지루하겠지' 하는 그동안의 고정관념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도후 불교문화산업기획단 이사장 스님은 "이번 전시 작품중 '정혜사 관음보살 입상'과 '의곡사 여래좌상 괘불'은 안전 문제로 개막일 하루만 전시될 정도로 일반인들이 쉽게 보기 어려운 귀중한 작품"이라며 "20세기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막식날인 17일 오후 4시부터는 괘불 이운식 퍼포먼스가 열리며, 26일 오후 2시에는 '현대미술 강연회' 세미나도 마련된다. 또 11월과 12월에는 양산, 속초, 여수에서 지방 순회 전시도 가질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불교사상바탕 명품들만 골라"

인터뷰 전시회 기획자 윤범모 교수



"한국미술문화 가운데 불교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지만 현대미술과 맥락을 함께하지 못해 그동안의 불교미술전은 고미술품 위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본격 창작품 가운데 불교사상을 기본으로 한 명품만을 모아 놓은 이번 전시는 근현대 불교미술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한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학과, 미술평론가)가 밝힌 전시회 개최 취지다.

미술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난 불교적 깨달음을 조형적으로 살펴본다는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윤범모 교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은 불교사상을 창작의 원천으로 삼은 20세기 한국미술의 대표급 작가들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에 부합되는 작가들로만 선정했다"며 "현대미술의 특징을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듯이 근현대 불교미술 또한 인상화, 추상화, 입체작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 감상하는 재미가 각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간 화합 예술 한마당

제6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5일부터

'사랑과 평화' 주제 단편영화 공모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유교·천도교·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모여 종교간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연합문화예술제가 열린다. 15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과 남산 애니메이션센터,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펼쳐지는 '제6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바로 그것이다.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운영위원장 양산스님)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한 단편영화공모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작품의 상영시간은 30분 미만이어야 하며,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우수작품을 선정해 대상(문화부장관상), 최우수감독상, 우수촬영상, 기획상, 특별상 등 5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924-7048

운영위원장 양산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지난 6월 월드컵 기념 종교미술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힘입어 이번 종교예술제도 종교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부산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이 화합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만큼 종교계도 문화교류를 통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제

24일 오후 7시 30분에는 불교방송, 평화방송, 기독교방송, 원음방송 주관으로 음악제가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범능스님의 '제비꽃이 핀 언덕에'를 비롯해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모짜르트 심포니 제25번 1악장', 신형원의 '개똥벌레', 한마음선원소년소녀합창단·조계사어린이합창단·PBC소년소녀합창단·CBS소년소녀합창단·원음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오-필승코리아' 등도 연주된다.

⊙영화제

기독교와 천주교가 주관하는 영화제는 △15일 동승 △16일 존큐 △17일 취화선 △18일 미션바비라 △19일 마리이야기(애니메이션) △20일 오아시스 등의 일정으로 남산 서울애니메이션센터에서 3~7시 하루 2회 상영된다.

⊙학술세미나

16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는 민족종교와 유교의 주관으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도덕성 회복과 종교인들의 다짐'을 주제로 윤이흠 서울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꽃밭을 배경으로 상념에 잠긴 동승을 그린 원성스님의 '마음이 머무는 아이'.

자연소재작품 100여점 전시

원성스님 "동자승 눈에 비친 세상 묘사"

동승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 온 원성스님(서울 돈암동 대불정사이 4년만에 자연을 소재로 한 신작 전시회 '자연 속으로'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마음이 머무는 아이', '연꽃의 서정', '목탁소리', '오직 한 생각' 등 1백여점의 작품이 벽에 걸린다.

'자연 속으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히 자연만을 그린 것은 아니다. 그의 작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동승을 앞에 등장시킨 후 배경에 자연의 모습을 담았다.

원성스님은 "동자승의 맑고 순수한 눈을 통해 세상을 묘사하려 합니다. 어머니 금강스님을 따라 절에서 생활하며 본 스님들과 자연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한편 원성스님은 현재 강원스님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집필중이며, 내년초 유혁주 감독에 의해 영화화 될 예정이다.

김주일기자

심곡암 단풍문화 축제

茶道시연·산사음악회

서울 북한산 심곡암(주지 원경)이 19일부터 27일까지 '제5회 단풍문화축제'를 마련한다. 19일 오전 10시 후불탱화 점안식을 시작으로 법회와 수계식이 열리며, 특히 27일에는 심곡다도회의 다도시연에 이어 오후 1시에는 산사음악회가 펼쳐진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가수 한영애씨의 '거기 누구 없소', 이성원씨의 '핏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등이 연주된다. 축제기간에는 기현 스님(양평 보타암)의 '선서화' 전시회도 볼 수 있다. ☎914-8860

한·중수교 10주년 기념

범패·나비춤 북경공연

인천시 무형문화재 10호 보유자인 일초스님(자원사 주지)과 전수생 15명이 세계문화교류협회 중국본부 초청으로 14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북경예술대학에서 공연을 갖는다.

한·중수교 10주년과 북경예술대학 건교 50주년을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일초 스님 무용단은 화려하고도 장중한 무게가 느껴지는 법고춤을 비롯해 바라춤과 나비춤 등을 무대에 올린다.



◇바라춤을 추고 있는 일초스님.